

국립항공박물관-ICOM 이집트 협업 온라인 워크숍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발걸음 :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사례

2024년 6월 13일(목) 15:00~20:00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



NATIONAL AVIATION
MUSEUM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목 차

개회 및 인사말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 Ossama Abdel-Wareth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 위원장	03
[1부]	
박물관과 접근성: 2023 ICOM-CIMUSET 연례 학술대회 결과를 중심으로 김가영 국립항공박물관	08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집트 박물관들의 노력 Ahmed Mohamed Hemida 이집트 관광유물부	13
이집트 박물관의 특수 교육 정책 및 방향 Amira El Saied Elkhatab 이집트 관광유물부 Ahmed Mohamed Naguib Mohamed Ibrahim 이집트 관광유물부	16
개방*공유*활용: 개방형 수장고를 통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접근성 향상 시도 구문희 국립민속박물관	20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접근성 정책 Sayed Abuelfadl Othman Ahmed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28
[2부]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대이집트박물관 Fatma Ahmed Soliman 대이집트박물관	34
베리어-프리 인증 제도와 한국의 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의 사례 이충희 국립항공박물관	41
국립항공박물관의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도전과 과제 박진경 국립항공박물관 권동운 국립항공박물관	45
[이집트박물관 소개]	
Grand Egyptian Museum(GEM) 아티프 미프타흐(Atef Mofteh) General Director of GEM & surrounding Area	54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NMEC) 아흐마드 파루크 고니엠(Ahmed Farouk Ghoneim) Managing Executive Director of the Authority of NMEC	62

개회 및 인사말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안태현입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지난 2022년 프라하 총회에서 박물관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의에서는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 그것입니다. 작년 10월 국립항공박물관은 ICOM 산하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의 연례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 31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박물관에서의 ‘접근성’ 과 ‘포용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현장 적용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연례 학술대회에 참여하였던 이집트 아스완 박물관의 Heba Al Ders 학예연구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이집트에서 발표하였고, 이를 청취한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의 Dr. Ossama Abdel-Wareth님께서 더 많은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관계자들이 ‘접근성’과 관련한 현장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고,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 워크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전 세계의 박물관 전문가들은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박물관 전문가들이 대상과 공감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그 노력의 결과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연속과 작은 선택으로 이번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에 맞게 지난 2월부터 많은 관계자들이 콘텐츠와 운영 방법 등을 고민했고 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워크숍은 한국어와 아랍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국제 학술행사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로 준비했다면 모든 것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한국어와 아랍어를 공식 언어로 준비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과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권의 박물관 전문가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는 이미 멋진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7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한국 항공 역사의 큰 획을 긋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던 비행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관람객과 만나지도 못하고 휴관을 거듭했습니다. 관람객들과 자유롭게 만나기까지 1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온라인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드라이브 스루 키트 배포, 지역 사회 아동 복지 시설 연계 사업, 무착륙 비행 홍보활동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개관 후 이제 만 4년이 지난 신생박물관이지만 그 어떤 박물관보다도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고민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교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는데 이집트는 전 세계 아랍어권 중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이집트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양 국가는 서로 간의 적극적 교류를 매우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피라미드의 구조와 같이 이번 워크숍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큰 물줄기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기까지 애써 주신 Dr. Ossama와 Dr. Yasmin을 비롯한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의 모든 이사진과 이집트 관광유물부의 박물관 부문(Museum Sector)의 Dr. Ossama와 관계자분들, Heba 아스완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대이집트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의 Dr. Fatma, 그리고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의 Dr. Sayed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국립항공박물관과 함께 멋진 콘텐츠를 준비해 주신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상훈 관장님과 유물과학과 관계자님들, ICOM 한국위원회의 김선정 위원장님께도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뜻깊은 워크숍을 빛내 주신 유성환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발표자님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국과 이집트의 '포용적' 박물관을 만들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

Ossama Abdel-Wareth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 위원장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한국 박물관과 이집트 국제박물관협의회 간 새롭고 유망한 협력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우리는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양측의 변함없는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 26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박물관 정의에 따라 이집트와 한국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울인 큰 노력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박물관은 기존의 역할을 넘어 모든 관람객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매력적인 역동적 공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여 우리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마련한 다양한 공동체와의 접근성과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 시나리오 및 전시 디자인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샤름 엘 셰이크와 후르가다 박물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로마 박물관 등 최근에 개관되거나 리모델링을 한 여러 박물관에서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박물관 모델에 맞춰 건축적 측면과 지적 측면 모두에서의 전시 접근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장벽 제거와 포용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단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ICOM-CIMUSET)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은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 박물관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국립항공박물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혁신적 조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박물관 정의가 전시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관람객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박물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임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워크숍이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간의 협력 확대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래에 박물관의 접근성 및 포용성 신장을 위한 협업 워크숍, 공동 프로그램, 지식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활기 넘치는 문화유산의 중심지이자, 장벽이 제거된 공간이자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과거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업 워크숍이 유익한 논의와 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Ossama Abdel-Wareth,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 위원장

1부

박물관과 접근성: 2023 ICOM-CIMUSET 연례 학술대회 결과를 중심으로

김가영 | 국립항공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집트 박물관들의 노력

Ahmed Mohamed Hemida | 이집트 관광유물부

이집트 박물관의 특수 교육 정책 및 방향

Amira El Saied Elkhatab | 이집트 관광유물부
Ahmed Mohamed Naguib Mohamed Ibrahim | 이집트 관광유물부

개방×공유×활용: 개방형 수장고를 통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접근성 향상 시도

구문회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접근성 정책

Sayed Abuelfadl Othman Ahmed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박물관과 접근성

: 2023 ICOM-CIMUSET 연례 학술대회 결과를 중심으로

김가영
(국립항공박물관 학술연구팀장 / 2023 ICOM-CIMUSET 연례 학술대회 코디네이터)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항공”을 주제로 하는 국립박물관으로, 지난 2020년 7월 5일에 개관하였다. 특히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개관과 동시에 휴관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그 어떤 박물관보다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온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산하 국제위원회인 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 (CIMUSET,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50회 연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결실을 보았다.

ICOM은 2022년 제 26회 프라하 세계박물관대회 때 새롭게 박물관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1946년 ICOM의 설립과 동시에 수립 · 공표된 후 박물관의 정의는 여러 번 개정되어 왔는데 특히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박물관 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고, 총 12단계의 과정을 거쳐 프라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기존 박물관 정의: 2007년 제 22회 비엔나 세계박물관대회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 모든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교육 · 연구 · 향유의 목적으로, 유 · 무형의 인류 문화유산과 그 환경을 수집 · 보존 · 연구 · 소통 · 전시한다.



새 박물관 정의: 2022년 제 26회 프라하 세계박물관대회

박물관은 유 · 무형의 유산을 연구 · 수집 · 보존 · 해석 ·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 향유 · 성찰 ·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제 50회 CIMUSET 연례 국제학술대회는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접근성과 포용성,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 개념들을 과학기술 분야 박물관에 적용한 첫 번째 자리였다. 전 세계 31개국 1,043명이 7일간의 학술대회, 필드 트립, 사전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박물관 정의를 개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장인정 ICOM 부회장은 “박물관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을 숙고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주요한 이슈와 변화를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포용성과 접근성은 박물관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특히 2023년 CIMUSET 연례 학술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측면에 한정하여 고려, 접근성을 이야기하던 것을 뛰어넘어 박물관의 공간과 콘텐츠 등이 누구에게나 오픈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포용성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늘 발표는 2023년 CIMUSET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전 세계의 박물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박물관 정의와 <접근성과 포용성> 개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학술대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개념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확인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사전 워크숍을 2일간(10월 21~22일) 진행하였다. CIMUSET 이사회,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특별 초청한 해외 연사들과 함께 3개월간 사전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참가자는 해외 10명, 한국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워크숍 운영진은 참가자들에게 접근성(accessibility)과 포용성(inclusion)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근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support, “easy” in life, no boundary, a way to eliminate barrier to xxx, free, interest, play everywhere, easy, belonging, needs are respectfully met, evolving, barrier free, no barriers(2명), able to join, take part, availability, in-cooperation, a psychological and physical threshold, a journey, make it easy to come in, playground, opportunity, you can
<포용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representation / safe / authority / respected / empathy, a feeling that the one is related, family, social and cultural justice, understanding, diversity, openness, We solve accessibility problems with inclusion. The two are complementary, welcoming, belonging, hug each other, the future, set of choices given, being seen as you are, together, for all, in-cooperation, embrace, permission, comfortable, no intangible prejudice, a status of person with no barrier to xxx, feeling comfortable
당신에게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은 같은 의미인가?	- Yes (2명) - No (13명) - not the same / both important, Yes / but also No, Accessibility and Inclusion are intersecting, No but they are often closely related or dependent

주요 질문의 답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참가자들은 접근성과 포용성이 매우 연관된 개념이지만 동일 개념으로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으며, 접근성을 물리적 측면으로, 포용성을 심리적 측면으로 조금 더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러한 본인들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과정을 워크숍과 학술대회 기간 중 전 세계 27개국의 박물관 전문가들의 57개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박물관에서의 적용 방향 및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CIMUSET 이사회와 국립항공박물관의 준비팀은 3일간의 학술대회를 <접근성과 포용성>에 관한 주제를 3개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사고의 확장과 현장 적용에의 가능성 검토, 문제의식 등에 대하여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1일 차에는 범위와 대상, 2일 차에는 방안, 3일 차에는 환경 조성을 주제로 다루었다.

1일 차 <박물관의 접근성은 누구를 위하여 향상되어야 하는가?>에서는 참가자들의 개념 정립과 확장을 위해 기조 및 특별 연사를 다양한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고, 대륙 및 국가, 박물관 또는 과학관의 유형, 정책 및 대상 등을 최대한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구 분	주요 내용	발표자 국적
기조연설	접근성 개념 > 과학관에서의 접근성 >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특별 발표	접근성 정책 및 방향: 박물관과 과학관	캐나다, 브라질
일반 발표	접근성의 대상 (1):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박물관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 또는 세대, 도시화 과정에서의 이주 아동 등 접근성의 대상 (2): 군사와 같이 문화 · 사회 · 역사적 선입견이 특히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유니버설 디자인 · 디지털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콘텐츠	대한민국, 짐바브웨, 알바니아,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2일 차에는 <어떻게 박물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실제 전 세계 박물관 현장에서 다양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 적용 프로그램 등을 다룬 32개의 발표를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3개 분과는 <박물관에 새로운 사람 끌어들이기, 박물관에서 새로운 기술 사용하기, 박물관의 새로운 시도 탐색하기>로 박물관 전문가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하는 “접근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CIMUSET이 ICOM 내 과학기술 분야 국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박물관과 과학관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이용 사례와 이를 활용한 접근성 사례, 또한 반대로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례 등 그 어떤 학술대회보다 접

근성과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후 “소속 기관 또는 참가자 본인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에 대한 이해 확장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 놀랍게도 한국 참여자 100%, 해외 참여자 92.7% (아마도 7.3%)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국가, 기관의 사례와 방향성 공유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기 전 세계 많은 박물관인들이 같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 3일 차에는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제 세션이 운영되었다. 특히 본인의 왜소증 환자로써의 경험담을 담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TED 강연으로 전 세계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아일랜드의 Sinead Burk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박물관 내 크리에이트 팀의 다양성 개선 프로젝트와 커뮤니티와의 협업 작업 사례를 발표한 Stedelijk의 Charl Landvreugd 학예실장, 그간 매우 드물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던 퀴어 큐레이터십을 발표한 호주국립박물관의 Craig Middleton 학예연구관의 발표는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들 발표의 공통점은 참가자들에게 “접근성”을 넘어 “포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이해를 돕고 미래를 위한 추가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박물관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다양한 역사 · 문화 · 사회적 스토리와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 그에 대한 논의와 협의,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한 실천은 꼭 필요하다. 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건축, 전시 기획과 설계 및 설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박물관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는 항상 아주 소소한 실행부터 매우 거대한 담론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근성과 포용성>이라는 개념과 함께해 왔다. 즉, <접근성과 포용성>은 박물관과 박물관 사람들에게 있어 새롭게 등장한, 그리고 도입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2022년 새롭게 공표된 박물관 정의를 통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와 책임으로 자리매김한 것일 뿐이다.

| 참고 |

50th Conference of CIMUSET 공식 웹페이지 <https://cimusetseoul2023.com>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전체 학술대회 현장 영상(영어/한국어), 연사 소개, 워크숍 현장 스케치 영상, 전 일정 현장 사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집트 박물관의 노력

Ahmed Mohamed Hemida
(이집트 관광유물부 지방박물관 중앙행정 감독관)

먼저 여러분께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한국 간 박물관 분야 공동 협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신 여러분께 이집트 박물관 부문 책임자인 모멘 오스만 박사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발걸음 -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사례”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회의는 이집트와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 및 소통을 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활동과 이벤트 등을 통해 박물관 문화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성, 포용성, 다양성, 지속 가능성 등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박물관 분야에 중요한 비전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발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집트와 한국 박물관의 노력에 대한 여러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집트와 한국 박물관에서 모두 실행 및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국가차원에서 문화 및 고고학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샤름 엘 셰이크 박물관(Sharm El-Sheikh Museum),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곧 개관할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등 여러 현대 박물관 개관과 같이, 이집트 유물과 유산을 홍보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니야의 말라위 박물관(Mallawi Museum in Minya), 파옴의 콤 오심 박물관(Kom Oshim Museum in Fayoum), 알렉산드리아 국립박물관(Alexandria National Museum) 등을 개보수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학 및 박물관 직원의 연수 및 자격 강화, 유물의 복원 및 보수, 현대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최고 평의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산하 박물관 부문(Museums Sector)이 주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집트 박물관은 사회·문화적 기관으로서 교육 및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유산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국가 및 문화 소속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 관광과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에게 역사와 문명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가이드 투어, 예술 및 교육 워크숍, 모든 이집트 박물관에서의 쌍방향 활동 등을 통해 이집트인들에게 우리의 예술과 문화유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과과정에 전시 유물을 포함시키고, 이집트 문명의 다양한 역사적 시대와 관련된 주제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대학에서 지식을 강화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과 행사에 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과 선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는 중동지역에서 장애인 돌봄 및 역량 강화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훈련과 재활 서비스,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장애인들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는 장애인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통합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노력을 모으고 연대해야 하는 사회적 사안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집트 박물관들은 장애인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박물관을 참여, 통합, 장애인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도록 모든 수단을 제공해 왔습니다. 많은 이집트 박물관들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박물관이 개관되는 가운데, 이집트 관광유물부(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는 새로운 박물관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며 박물관에서의 장애인 소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프로그램 차원에서, 박물관 부문은 지난 몇 년간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부’를 통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박물관의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도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박물관 부문을 대표하는 고고학 최고 평의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는 모든 현대 박물관이 계획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접근 가능하며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향후 계획은 박물관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소개하여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 통합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이집트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집트 박물관의 특수교육 정책 및 방향

Ahmed Mohamed Naguib Mohamed Ibrahim
(이집트 관광유물부 박물관 부문,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장)

Amira El Saied Elkhatab
(이집트 관광유물부 박물관 부문,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 부국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관광유물부(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 산하 박물관 부문 총 책임자인 모멘 오스만(Momen Osman) 박사를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집트 박물관에서의 특수교육은 1996년 와파 알사텍(Wafaa Al-Sadek) 박사가 장애인에 관심을 갖자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시작되었고, 타하니 누(Tahany Nauh)씨의 도움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뚜렷한 관심이 나타났으며, 이런 경험은 그 후 2004년에 타흐리르(Tahrir) 이집트 박물관으로 옮겨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고고학 인식 학교(Archaeological Awareness)'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타흐리르의 이집트 박물관과 그리스-로마 박물관에서 그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흐메드 모하메드 나집 나지(Ahmed Mohammed Najib Naji) 씨의 지휘하에 박물관 부문 산하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총괄관리국의 목표 중 하나는 이집트의 모든 박물관에 특수교육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전문 연수 과정을 통한 직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설립된 모든 박물관은 장애인 박물관 방문자들을 위한 교육 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교육부, 문화부, 고등 교육부 및 사회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미술대학, 시각장애 특수학교 누르 학교(Noor School for the Blind), 청각장애 특수학교 아말 학교(Amal School for the Deaf)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 내에 고고학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의 성과

-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설립 이후 이집트 관광유물부(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 산하 고고학 최고 평의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의 박물관 부문에 소속된 모든 박물관에 박물관 특수교육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과 모든 장애인과 노인 응대 방법을 연수 받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들은 박물관의 전문 연수 과정에 참여했거나 전문가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맞이하고, 박물관 내 유물을 보는 가이드 투어에 동행하며, 다양한 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장애인 중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조형예술 전시회도 개최합니다.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개최되는 흥미로운 축제에서 감사장과 선물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들이 박물관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소속 박물관에서의 최고 수준의 장애인 접근성 마련 및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운영, 이동이 제한된 분들과 노인을 위한 휠체어 제공 및 전용 화장실 마련 등을 실행하며 필요한 건축적 접근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흐리르(Tahrir) 이집트 박물관 및 이슬람 예술 박물관 등에 있는 점자 라벨을 다른 박물관에도 적용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방문 경로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일부 전시물에 대한 모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과 새롭게 개발 또는 건설 중인 여러 박물관에서 이미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여러 소속 박물관에 청각 장애인 방문자 안내를 위한 수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맞춤형으로 수립된 액션플랜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이집트의 비전 2030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서 현재의 기술 발전과 함께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부문 소속 박물관에서 방문, 가이드 투어, 예술 워크숍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장

에 아동들에게 모든 지원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장애인법(Law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0호 및 고고학 최고 평의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의 최신 규정에 따라 특수인에 해당하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인(모든 유형의 장애인: 시각, 신체, 청각, 지적장애)
- 2) 소인증, 지중해성 빈혈
- 3) 노인, 고아, 노숙 아동
- 4) 일부 혈액 질환(혈우병)
- 5) 암 투병자
- 6) 모든 유형의 자폐증, 복합장애인(예: 청각 및 시각장애인)
- 7)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고 창의적인 학생
- 8) 한부모 가정, 문맹, 학업중퇴자
- 9)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시민 단체들과 협력하여 박물관 부문 소속 모든 박물관에서 여러 예술 워크숍과 조형예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각 장애인 응대에 필요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 보조 도구를 알아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는 이탈리아 오메로 박물관(Omero Museum) 등 여러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카이로 이슬람 미술관(Islamic Art Museum in Cairo)의 장애인 박물관 교육부서는 2021년 4월 19일부터 VAKT(시각, 청각, 운동, 촉각)라는 다중감각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을 박물관의 유물과 연계하여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 비디오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해석하여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VAKT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육용 비디오는 수어 번역도 지원합니다

-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국제 및 국내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 지난 2 년 동안 박물관 부문의 언론 총괄관리부(General Administration of Media)와

협력하여 코로나 19팬데믹 예방 및 선제 조치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시리즈를 수어로 제작했습니다.

- 또한 국제 협약, 이집트 헌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 응대 방법 등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박물관 특수교육 총괄관리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및 박물관 부문의 WhatsApp 그룹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방×공유×활용: 개방형 수장고를 통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접근성 향상 시도

구문희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박물관의 수장고는 소장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내부 직원조차 엄격한 규율과 규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흐름은 박물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유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관람객이 접근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를 탄생시켰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이하 ‘파주관’)는 2021년 7월 경기도 파주시에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이다. 이곳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는 1백 만여 점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물리적 시설의 개방을 넘어 박물관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수장고, 민속 아카이브, 보존과학실을 주요 시설로 하는 파주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자료의 개방과 공유를 시도한다.

I. 개방(OPEN)

1. 열린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Open Storage and Visible Storage)

수장고는 박물관 기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장품의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장품은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수장고에 보관된다. 파주관의 수장고 역시 목재·섬유·지류·금속·도토기·석재·복합재질·아카이브 자료 등 재질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 및 기능’이라는 2차 기준에 따라 유사한 유형의 생활사 소장품을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15개의 수장고 중 상대적으로 보존 환경의 민감도가 낮은 10개 수장고에 대해 전시 기법을 접목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열린 수장고(Open Storage)’는 관람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수장고이다. 7개 수장고(4~6 수장고, 9~11 수장고, 16 수장고)가 이에 해당하며, 상시 개방되어 수장고 내부에서 소장품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 파주관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타워 형태의 수장고는 대표적인 ‘열린 수장고’이다. 외부에서 보면 높이 12m에 달하는 3개의 타워이지만 내부는 1, 2층으로 분리된 6개의 방이자 수장고이다. 로비 중앙에 위치한 6개의 열린 수장고(4~6 수장고, 9~11 수장고)는 전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주는 한편, 수장고 안팎에서 소장품을 살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린 수장고 내부는 일정한 온·습도를 철저히 유지하기 어렵고, 내부 조명 뿐만 아니라 자외선 등 외부 햇빛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이곳에 소장된 민속 유물은 온습도나 조도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도토기류와 석재류 소장품이다. 도·토기 및 석재 소장품은 다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6개의 수장고로 나뉘어 보관되었다. 시루, 항아리 등 식생활 관련 유물, 등잔, 촛대, 벼루와 연적 등 주생활 관련 유물, 지석, 제기, 명기 등 의례 관련 유물 등 유사한 용도의 기물을 모아 각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수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고자,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에는 수장대를 ‘ㄷ’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6m에 달하는 층고를 고려한 키 큰 수장대를 설치하였다. 유리벽으로 구성된 열린 수장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소장품 보관 형태 역시 전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파주관은 건축물이 창호의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어 수장대의 형태도 이에 맞추어 프레임을 분할한 큐브 형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프레임 구조(기둥)에 유물이 가려지는 것을 막고 선반의 형태가 건물의 내·외관과 어우러져 차분하고 통일감 있는 전시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타워형 수장고(열린 수장고) 1층의 4~6 수장고에는 106개, 2층의 9~11 수장고에는 76개의 큐브형 수장대가 있으며, 유물의 크기와 부피에 따라 유리 선반을 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랍장 형태의 수장대도 혼합 배치하여 평면형이나 작은 유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 격납된 유물은 재질, 용도, 기능에 맞추어 유사 그룹의 특색이 드러나면서도 조형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했기에, 유물 격납 이전 소장품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상세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¹



열린 수장고 9의 소장품 3D 모델링 및 배치 시뮬레이션 화면

1 국립민속박물관, 202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1주년, 개방형 수장고·민속 아카이브』, p. 131.

열린 수장고 중에서도 타워형 수장고에 해당하지 않는 16 수장고는 목재 유물 수장고로, 전시 성격이 가장 잘 반영된 ‘수장형 전시’ 공간이다. 타워형 수장고와 같이 큐브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시 연출 공간을 마련하여 받침대와 마감재, 영상 등의 요소로 여타 수장고와는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이곳에는 대표적인 목재 민속유물 중에서도 장식성이 높은 떡살과 다식판, 소반, 반닫이를 배치하여, 수장고의 기본적인 ‘수장’ 기능에 전시 연출 요소를 더해 소장품이 보다 돋보이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장된 유물과 관련된 도록 등 참고 자료를 배치하여 수장 유물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고, 소장품 관리가 전산화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유물카드’를 활동지로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수장고와 연관된 정보와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²

10개의 개방 수장고 중, 금속 유물을 보관하는 3 수장고, 목재 유물을 보관하는 8 수장고, 유물을 등록하는 7 수장고 등 3개의 수장고는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로 운영하고 있다. 보이는 수장고는 외벽에 가깝게 전면 배치된 타워형 수장고(열린 수장고 4~6, 9~11)와는 달리 비교적 내부에 위치해 있다.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명 밝기를 제한하고, 격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중형 이동식 격납장을 설치하여 유물을 보관하지만, 대형 유리창을 통해 관람객이 수장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였다. 보관 유물의 특성상 관람객이 직접 들어올 수는 없지만, 수장고의 내부 구조 및 소장품의 격납 방식, 소장품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작업 과정을 관찰하며 수장고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파주관은 ‘보존하는 수장고’에서 ‘보이는 수장고’, ‘체험하는 수장고’의 기능을 더하여 수장고 본연의 기능은 지키며 공개와 활용을 통한 공유 공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³

2. 민속 아카이브 정보센터(Folklife Archives & Library)

‘민속 아카이브 정보센터’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수집, 연구, 전시, 보존, 교육 등 박물관 업무 수행을 통해 생산된 정보의 결과물과 민속 관련 기증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공간이다. 2000년대 초 ‘민속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민속·생활문화 관련 문서 및 미디어 자료를 수집한 이래로 2024년 현재 100만 점을 상회하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민속 아카이브 정보센터는 2021년 7월 파주관의 개관과 함께 문을 열었다. 15년여간 집중해온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카이브 자료를 대중들에게 공유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민속 아카이브센터에서는 그동안 수집해 온 사진, 음원, 영상

등 민속문화 관련 자료와 박물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도록 등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문제로 웹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자료까지도 열람할 수 있다.

입구부터 시작하여 센터 곳곳에는 민속 아카이브의 역사 및 업무 활동 영역에 대한 전시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증자료와 박물관에서 구성한 아카이빙 컬렉션 또한 체험물이나 실감형 영상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영상자료 열람석에서는 교육, 수집, 전시, 학술, 행사 등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박물관 생산 영상자료를 현장에서 시청 가능하다. 일련의 시설을 통해 관람객은 이곳에서 디지털 자료와 박물관에서 발간한 도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아카이브 자료 생산·등록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수집·정리·보관·활용이라는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성격과 사진·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다.

파주관으로 민속 아카이브 자료를 이전하면서 실물 자료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사업 단위로 묶어 한 곳에 보관하던 것을 파주로 옮겨오면서부터 종이·전자 기록물과 박물관, 자기테이프류, 필름류 자료를 매체별로 수장고(13~15 수장고)를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II. 공유(SHARE)

파주관은 수장고의 개방을 통해 소장품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 관람객 친화적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수장고 본연의 기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설명 패널이나 레이블이 아닌 유물관리를 위한 소장품 번호가 비치되어 있다. 소장품 정보 요청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장품과 이를 둘러싼 지식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다양한 자료 검색 및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방형 수장고에서 유물을 직접 접한 관람객이 소장품 정보실과 키오스크에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넘어서 새로운 지식과 해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파주관은 궁극적으로 지식 공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단순 수용자가 능동적 참여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지향한다.

1. 소장품 정보실-인터랙티브 미디어 월(Collection Media Wall)

소장품 정보실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전체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소장품 17만

² 국립민속박물관, 202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1주년, 개방형 수장고·민속 아카이브』, p. 132.

³ 국립민속박물관, 202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1주년, 개방형 수장고·민속 아카이브』, 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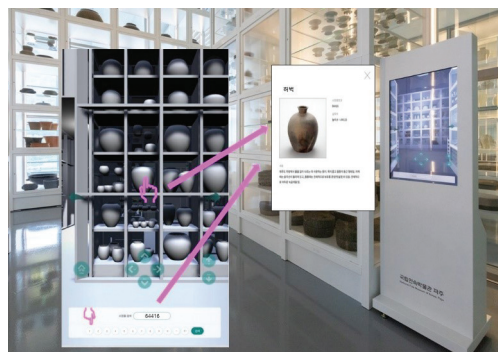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담아가기' 화면

여 점과 관람객을 이어주며,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총 6대의 4K 디스플레이(전체 약 6.5m × 2m)로 구성된 멀티비전에 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의 벽면에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기법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더해 몰입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월(Interactive Media Wall)'은 국립민속박물관을 포함하여 한국의 국립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소장품 관리 프로그램인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약 17만여 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관람객은 소장품 이미지로 가득 채워진 패널에서 각자의 흥미를 끄는 이미지를 선택해 해당 소장품의 특징과 용도, 현재 보관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연관된 소장품 이미지와 하단의 [i] 아이콘을 선택해 소장품의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담아가기' 아이콘은 QR코드를 통해 박물관 소장품 검색 페이지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담아가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소장품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데, '좋아요'의 수는 데이터로 누적되어 관람객이 선호하는 소장품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키오스크(Collection Information Kiosk)

열린 수장고(Open Storage)는 관람객이 자유로이 출입하며 소장품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전형적인 전시장과는 달리 소장품 번호와 위치 번호(수장대 선반 번호) 외에는 활자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용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한 소장품의 상세 형태 등 관람 중에 발생하는 소장품을 향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파주관에서는 7개의 열린 수장고(Open Storage)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장품 검색 키오스크

키오스크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수장고 내부 구조와 소장품의 상세 이미지를 동일하게 시각화하여 소장품과 키오스크의 이미지를 비교·선택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수장고를 둘러싼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위치 정보와 유물 번호를 검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원하는 소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소장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명칭, 용도 및 기능 분류, 크기, 상세 설명 등의 정보와 더불어 여러 각도의 사진 등을 제공한다.

키오스크는 민속 아카이브 센터(Folklife Archive & Library)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민속 아카이브 키오스크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발간자료, 소장자료(유물, 아카이브), 민속대백과사전, 민속현장조사 내용을 통합하여 제공하는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연계한 아카이브 자료와 소장품, 관련 도서와 영상을 함께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I. 활용(UTILIZE)

수장고에 축적된 유물과 정보는 누구에게나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된다. 일련의 정보는 현대적 맥락에서 '활용'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다.

1. 수장형 전시

소장품의 위치는 수장고 이전, 전시 활용, 관외 대여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장고 내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관에서는 소장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장형 전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관람객과 소통을 시도한다. '수장형 전시'는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동시에 한시적으로 전시 주제에 맞춰 유물을 재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유물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주관의 수장형 전시는 현대 공예 작가와의 협업 전시와 전시 테마에 따른 해설형 전시 등 2가지 유형으로 기획되어 운영하고 있다. 현대 공예작가 협업 전시는 전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기획된 열린 수장고 16(Open Storage 16)에서 개최되는 전시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현대 공예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전통적 생활 용구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재배치되고 현대 공예 작가의 상상력이 기존 유물과 결합하는 모습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장형 전시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해설형 전시는 수장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장품을 비교·탐색할 수 있는 전시이

다. 6개의 열린 수장고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듯 거닌다는 의미로 ‘수장고 산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관람객이 소장품을 감상하며 다채로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운영한다.

파주관에서는 수장형 전시 외에도 보존과학을 소개하는 ‘열린 보존과학실(Open Conservation Lab)’을 상설 전시실로 운영한다. 소장품 관리에서 보존과학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으로 파주관의 보존과학실 역시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비공개 영역에 속하는 보존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소장품 분석, 보존 처리, 환경 제어 등의 활동을 보존처리된 유물 전시 및 다양한 체험코너를 통해 대중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2. 어린이 체험실

어린이 체험실은 어른에게도 생소한 개방형 수장고라는 개념을 어린이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어린이 체험실 내의 구조물은 열린 수장고 4~6, 9~11의 외관을 차용한 것으로, 어린이 자신이 열린 수장고 내의 유물이 되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10가지 미션이 담긴 활동지를 바탕으로, 신발을 보관하고, 손을 소독하고, 먼지를 털고, 블록으로 이름을 써보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자신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다. 일련의 활동은 수장고에서 유물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체험 말미에는 자신의 활동을 그림일기로 그려보는 코너를 두어 아카이빙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린이 체험실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파주관의 기능과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3. 미디어 콘텐츠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수장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보존 환경에 민감한 보관 유물의 특성상 관람객이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곳의 보이는 수장고 외벽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금속, 목재 유물이 보관된 보이는 수장고 3, 8에는 수장고별 대표 유물을 선정하여 보관 모습과 위치, 형태 및 조형적 특성, 사용 모습 등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였다.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예술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박물관에 새로 들어오는 소장품을 실측하고 등록하는 보이는 수장고 7에는 유물의 등록 과정에 관한 콘텐츠를 탑재하였다. 소장품 등록 절차와 포장하여 수장고에 격납하는 과정을 거대한 벽면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3D 큐레이터가 이를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하여, 직



보이는 수장고 7의 소장품 등록절차 미디어 콘텐츠 영상

원이 등록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관람객이 보이는 수장고 7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IV. 개방 × 공유 × 활용

전시, 학술연구, 교육, 출판 등을 위해 활용되어 온 박물관 소장품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숫자는 전체 소장 규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 최대 규모 개방형 수장고인 파주관은 ‘개방 × 공유 × 활용’이라는 비전 하에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하며 공개되지 않던 유물을 실물 또는 디지털 자료로 전면 공개하여 자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민속 유물과 민속 아카이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아우르는 종합 자료 센터 속에서, 관람객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내는 지적 활동을 경험한다.

수장고의 개방은 공개와 보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시도이다. ‘소장품의 보존’이라는 제 1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장고를 개방하는 일은 유지비용과 업무의 질적·양적 증가를 수반하는 일이다. 여러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시도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유물이 과거의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소장품 접근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지식의 창출과 폭넓은 공유의 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접근성 정책

Sayed Abuelfadl Othman Ahmed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 감사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전시팀장)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이집트와 아랍 세계에서 동종 박물관 중 처음으로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며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문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의 모든 측면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특별한 전시물 중에는 왕실 미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터랙티브 전시 기법을 통해 미라의 봉대 안쪽까지 보여주면서 그 비밀을 밝혀 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작과정의 의식과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단순히 박물관 이상의 장소입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풍부한 이집트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맥락 속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하여 모든 관람객이 의미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에서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게 하고 소그룹별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여 이집트 문명을 통한 특별한 여정을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수어 투어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지정 주차공간이 제공됩니다.
- 모든 박물관 전시물은 엘리베이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박물관의 서비스 건물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무료 휠체어가 제공됩니다.
-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람객들의 어떤 의견이나 질문이라도 수용하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 박물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요청 시에는 점자 팸플렛이 제공됩니다.

전시회를 통한 접근성

우리는 박물관 건물 및 유물, 전시물을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관람객들에게 개방적이고 접근성을 갖춘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전시 갤러리의 접근성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박물관은 기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종류의 관람객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시 케이스 안에는 전시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과 삽입한 작은 테블릿이 있습니다.
-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10개의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이집트 문명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4개의 LED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4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이집트 역사의 모든 시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천육백만 개 이상의 LED로 제작된 세계 어느 박물관에도 없는 최대 규모의 스크린 (그라운드 및 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전시 케이스에는 QR 코드가 있어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패널 위에 박물관 유물의 사진과 정보를 수록하여 모든 관람객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기 다른 수준의 정보를 담은 다양한 종류의 라벨을 붙여 관람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박물관 모바일 앱을 통해 박물관 위치, 간편하게 집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 전시관·개관 시간·시설 등 박물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QR 코드를 찾아 증강현실(AR)로 복원된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고 유물을 향해 폰을 가리키면 유물이 복원되고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장벽 없는 문명(Civilization without barriers)’은 카이로 대학교 교양학부 스페인어 학과 시간제 학점 이수 프로그램(ChP) 과정 학생들이 만든 새로운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아랍어, 영어 및 스페인어의 3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모든 전시 갤러리에 제공됩니다.
 - 2- 박물관 브로슈어는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 3개국어 점자로 준비되어 인쇄되었습니다.
- 이런 종류의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보를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및 포용성 촉진

박물관은 이따금 장애인을 위한 매우 접근성 높은 워크숍과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감 투어
-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예 워크숍
-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주변 환경 이해 워크숍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이집트 국립은행과 공동으로 2023년 7월 11일(화)에 시각장애인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유명 오케스트라 그룹인 “알 누르 와알 아멜 오케스트라(Al Nour wa Al Amal” Orchestra)”를 초청, 특별 문화 이벤트 활동으로 박물관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사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의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이집트 관광유물부(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의 관광개발 및 커뮤니티 소통부(Cultural Development and Community Communication Department) 및 시각장애인을 돕는 공공단체와 협력하여 “흰 지팡이의 날(White Cane Safety Day)”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동 수단으로 흰 지팡이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과의 소통 채널을 개선하고 비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내용은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지체장애나 지적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박물관의 관람객들에게 포용적이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접근성 있는 문화 및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이집트 문명의 혁신적 비전을 소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전, 향상,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소통의 중심지

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관광개발 및 커뮤니티 소통부는 일련의 실시간 워크숍도 개최하였는데, 이집트 청소년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집트의 유·무형 유산을 교육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 박물관은 장애인을 위한 활동 및 워크숍을 전개한 덕분에 세계장애인연맹(WDU)의 실버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보존 및 복원 연구실에서의 접근성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여러분이 박물관의 복원 연구실(restoration laboratories)을 방문하여 전문가 팀이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유물들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에서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복원, 보존 및 과학 연구 실험실에 관람객의 접근을 허용하는 이집트에서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또한,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러 이집트 대학교의 고고학 학부 학생 및 동문들을 대상으로 복원 및 보존 연구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조정 공간 및 기타 서비스 공간을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안내 표지판(signage books), 계기성 미술 전시회, 실시간 워크숍 등이 포함되며, 스포츠 분야에서는 박물관 경내에서 스쿼시 국제 챔피언십을 두 번 개최했습니다.

2부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대이집트박물관

Fatma Ahmed Soliman | 대이집트박물관

베리어-프리 인증 제도와 한국의 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의 사례

이충희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의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도전과 과제

박진경 | 국립항공박물관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대이집트박물관

Fatma Ahmed Soliman
(ICOM 이집트 국가위원회 집행이사회 위원, 대이집트 박물관 접근성 담당국장)

대이집트박물관(GRAND EGYPTION MUSEUM)의 중요성

대이집트박물관은 1979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유적지인 기자의 대피라미드(Great Pyramids of Giza)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습니다. 즉, 기자 대피라미드의 일부로 새로운 실내 유적지(Heritage indoor site)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확장과 연속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 디자인과 뛰어난 건축적 특징을 지닌 메가 스페이스로 독특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입니다. 전체 11,700 에이커(47,348,220 m²)의 공간 중 박물관 부지는 117 에이커(473,482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이 오픈 되면 대이집트박물관은 하루 약 15,000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이집트박물관은 도로, 주택, 교통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시작했으며, 현장에는 약 1,50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 활동으로 파생되는 약 5,000여개의 일자리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계획의 일환으로 대이집트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Atef. M.2022).

대이집트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그리스 - 로마 시대의 말기까지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전시하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 될 예정으로, 고고학의 중심이자 이집트학의 주요 원천이 되어 고대 이집트의 역사, 유산 및 예술을 보호하고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은 1922년 발굴 이후 처음으로 전시되는 투탕카멘 왕의 컬렉션이 될 것입니다. 약 5,483점의 유물을 다섯 가지 주제, '투탕카멘 왕의 무덤 발견; 투탕카멘의 정체성; 신념; 보호; 생활 방식'으로 나누어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와 인류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관람객들과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이집트박물관에는 12개의 연대기순으로 된 전시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실물 유물인 쿠푸 왕의 배(King Khufu's Boats)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쿠푸 왕의 배는 기자 피라미드 부지의 오래된 박물관에서 새로운 최첨단 대이집트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 환경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전용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이집트박물관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집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포용적인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적 교육과 박물관에서의 비공식적 교육을 연결하여 관람객들의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국내외 관람객을 위하여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중동지역에서 손꼽히는 최첨단의 보존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이집트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운영이 시작된 분야는 첨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전시용 유물 수령, 보존 및 준비였습니다.

분명 이집트에서 대이집트박물관은 소장 유물, 전시, 교육 활동 및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영감을 주는 21세기형 미래 박물관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부문의 경쟁력 있는 동력의 하나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문명 전체를 보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향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이집트박물관이 물리적 또는 지적인 부분 등 모든 측면에서 접근 장벽이 없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관람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와 즐길 거리 등

을 통해 사회화되길 원하는 관람객들의 특수한 요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권 협약 중 하나인 평등을 지향하고, 이집트 정부의 전략적 계획인 2030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 수행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PWD) 대상 고객군

대이집트박물관의 대상 고객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국내외 장애인들이 포함됩니다.

: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 왜소증, 청각 장애 및 시각 장애인, 암 환자, 노인, 고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일원

대이집트박물관은 장애인 및 특수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리적 접근성을 구현하고 범용설계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박물관의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달성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에는 외부 접근성과 내부 접근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외부 접근성 개선은 박물관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 전체를 개선하여 달성되었습니다. 9,400에이커(38,040m²)에 달하는 부지 중 박물관 건물은 117 에이커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도로 및 주차장, 조경 등을 위한 용도와 카이로의 4호선 지하철 등 교통 용도의 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이집트박물관에서 35km 떨어진 곳에는 스팅크스 공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일 2,500대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보호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수하물 보관시설, 온라인 예약 및 실물 티켓 발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 접근성 관련 시설로는 모든 구역에 범용설계규정을 적용한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좌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의 설계계획은 외부 및 내부 모두에서 물리적인 이용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에 새로운 지하철역을 신설하고, 도로를 연장하고,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 내부적으로는 경사로, 전기 에스컬레이터, 유리 엘리베이터, 응급실, 개별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업무시간 동안 응급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휠체어와 골프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절약해 주고 있습니다.

전시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시 케이스를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여 왜소증 방문자 및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과 관람을 위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시관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에서의 디지털 파워

대이집트박물관은 발견의 디지털 놀이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문화와 역사를 융합하고 변환하는 여러가지 디지털 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센서를 제공하여 전시관, 서비스, 시설(화장실, 응급실 및 진료소, 기도실, 레스토랑 및 상점 등)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Dimitris, 2019). 관람객들은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시물들과 상호작용하며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시설 및 개방시간 관련 정보, 오시는 길, 활동 일정 캘린더, 온라인 또는 현장 예약 방법, 지도 및 계획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의 접근성 관련 **두 번째 원칙**은 지적인 접근성입니다. 이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박물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따라서 대이집트박물관 전시팀은 아트리움(Atrium)과 중앙 대계단(Grand Staircase)에 7개 언어(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로 설명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자 브로슈어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출판물이 있으며, 특히 레스토랑 중 한 곳은 메뉴를 점자로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시팀의 접근성 책임자는 전시팀과 협력하여 전시 공간에서 아랍어 및 영어 점자 라벨이

부착될 대상과 점자 촉각 모형 및 체험 테이블을 선택하고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전문 큐레이터와 내용을 공유하여 점자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텍스트가 명확하고 안전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말을 계속하며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청각장애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 디지털 다큐멘터리 자료에 대해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일부 스토리텔링 자료를 수어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정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및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정보접근성 정책을 적용하여 박물관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들은 학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Kotler, 2001).

게다가, 대이집트박물관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전시관을 마련하여 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언제나 행사와 워크숍을 주최하여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대화형 스크린, 좋은 오디오 시스템 및 접근 가능한 컴퓨터 등의 보조기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 3의 원칙은 태도적 접근성으로, 박물관 직원의 도덕적 태도를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자와의 협력과 공유능력을 강화하고 인식을 확대하여 박물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대이집트박물관 팀은, 전문 심리학자를 초청하여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여 박물관 직원들이 기술과 행동을 향상시키고, 관람객과 대면하기 이전에 정신적 장애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적절하게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에서의 활동, 행사 및 프로그램

2019년 12월, 대이집트박물관은 관심있는 관람객들을 위해 포용적 투어(inclusive tour)로 특별하게 모집, 보존 연구실(Conservation labs)에 초청하는 시험적 마케팅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수의 학교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 프로젝트 총괄 책임(Major Atef Moftah)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포용적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15명의 다운증후군 그룹과 그들의 가족을 박물관에 초청하여 대이집트박물관 프로젝트를 관람하고 보존 센터(conservator center)를 방문하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보존 센터에서는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지만 박물관장은 모든 이용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장애인들의 방문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보존 학예인력(conservator)의 복장을 하고 역할극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연구소, 보안, 청소 및 교육 팀에 자원하여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재방문 요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카이로 디자인 워크 경연 제출용으로 예술작품을 그린 몇 명의 재능 있는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집트 자폐협회(Egyptian Autistic Association)와 공동으로 그들의 디자인에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의 접근성 책임자는 이를 계기로 이들에게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워크숍에는 스토리텔링 세션과 고대 이집트 가구 예술에 대한 발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어 고대 이집트 기호가 새겨진 의자 디자인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4월 2일 국제 자폐인의 날에 대이집트박물관은 250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자폐 스펙트럼 청소년의 가족과 디자이너로부터 제작된 의자를 기증받았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카이로대학교 특수 교육 센터(Center of Special Needs at Cairo University)와 협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학예인력들에게 자격을 갖춘 교수들의 현장 수어 강좌를 제공, 지역 및 국제 수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인력들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시각 장애 학생 50명과 그들의 도우미들로부터 특별한 관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헤드폰(earpieces)를 제공하고, 물 속에 둘러싸여 있는 방첨탑(hanging Obelisk),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조각상(King Ramses II massive statue) 등 복제모형이 없는 유물에 대해 이동하며 유물을 만질 수 있는 가이드 터치투어(guided touch tour)를 제공했습니다. 터치 투어 후, 중앙 대계단(Grand Staircase)에 있는 촉각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고정형 테이블에서 안내문을 읽고 만져보며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이들은 박물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물관은 골프카로 그들을 주차장까지 배웅하며 전체 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사회적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암 환자와 특히 그들 중 여성 환자들을 모아 맞춤형 안내 투어를 제공하여 투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소규모 그룹과 어울리며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건물 외벽을 보라색으로, 자폐 인식의 날에는 파란색으로 점등하는 등 시기별로 행사를 추진하며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NGO 및 유사한 성격의 문화기관 등 다양한 정부,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외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관람객군, 특히 지체 장애와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PWD)들이 박물관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식 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Dimitris, 2019).

아웃리치(봉사)활동에는 고아원, 노인 주택, 지역 학교, 병원, 스포츠 센터 등을 방문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과 저소득층이 박물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초청하여 전시관 투어와 스토리텔링 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 자산을 발견, 보호 및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장애인의 재능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인용문헌 |

(Maslow, A., (1943, July.).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https://psychclassics.yorku.ca/Maslow/motivation.htm>), York : s.n.

ICOM, 2022. (<https://icom.museum/en/news/icom-approves-a-new-museum-definition/>), Prague : ICOM.

Kotler, N. K. a. P., 2001. Can Museums be All Things to All, People?: Missions, Goals, and Marketing gaol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Vol. 18, No. 3(2001), pp. pp. 271-287, 2000.

베리어-프리 인증 제도와 한국의 박물관 : 국립항공박물관의 사례

이충희(국립항공박물관 시설안전팀장)

베리어-프리(Barrier-Free, BF)는 1974년 국제연합(UN)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행하는 운동과 정책을 뜻한다.

1. BF 인증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BF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환경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설계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오늘 우리가 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환경 BF 인증 제도의 경우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 손잡이의 위치, 점자 안내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 BF 인증 제도는 실내외 인테리어와 설비, 웹 콘텐츠 등 다양한 공간과 상품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8개의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2. 생활환경 BF 인증 제도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일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개별 시설물과 구역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별 시설물과 지역 법률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개별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 공원, 제10조에 해당하는 신축·증축 건축물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2)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계획 또는 개발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택지 개발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해당 지역의 사업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인증의 종류는 본인증(유효기간: 10년)과 예비인증(본인증까지 유효하나, 개별 시설 및 지역 개발 등의 준공 승인 후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됨)이 있다.

그리고 본인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 1) 최고 등급: 인증 기준의 90/100 이상
- 2) 우수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100분의 80 이상 또는 100분의 90 이상 만점을 받은 경우
- 3) 일반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3. 국립항공박물관의 BF 인증

2020년 7월 5일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건립한 공공건축물로 기획 단계부터 BF인증을 고려,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 예비인증, 시공 단계 본인증을 거쳐 2020년 7월 30일 '우수' 등급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참고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2021년 12월 4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의 일부가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BF 인증은 2015년 이전 건립된 건물에는 의무가 아니며,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아직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인증을 받은 기관이 10여 관에 불과하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주요 생활환경 BF 인증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박물관 외부 공간: 보도부터 입구까지 점자 블록 설치
- 2) 박물관 입구: 점자 촉각 안내 지도, 음성안내 표지판 및 점자 블록 설치
- 3) 지하 1층: 장애인 전용 주차에서 1층 전시실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 보행안전통로 확보

- 4) 에스컬레이터: 점자, 불빛, 음성 안내
- 5) 전시실 및 체험관, 상설 교육 공간: 오픈형 베리어-프리 안내 데스크 운영
- 6) 야외 공간, 3층 야외 쉼터 등 계단 공간: 경사로 설치
- 7) 박물관 입구, 전시실 내부: 휠체어·유모차 이동을 위한 턱 미설치
- 8) 지하 1층부터 4층, 옥상 전망대: 휠체어·유모차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리프트 운영, 계단에는 안전 손잡이와 계단 인지 점자 블록 설치
- 9) 1층 ~ 3층 건물 내부: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 별도 설치
- 10) 건물 내 기둥: 시각장애인의 기둥 인지를 위해 기둥 주변의 바닥 재질과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안전 쿠션 설치

4. 박물관에서의 BF 인증 제도의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에서 BF 인증제도는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이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물리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그 대상을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다.

- 1)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BF 인증의 지속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BF 인증은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지, 최선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유지 관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BF 인증 이후의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2) BF 인증 제도가 의무화 적용이 되지 않는 제도 이전에 건립된 박물관 및 미대상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성 확대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비록 인증 제도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개선 가능한 방안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3) 현재 BF 인증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8개의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전문성, 인증의 질적 차이 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박물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다면 실

질적인 접근성 개선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접근성은 현재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안되고, 관련 제품들이 보완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검증과 실질적인 적용을 돕는 인증 기관 평가 항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국립항공박물관의 베리어-프리 박물관으로서의 도전과 과제

박진경(국립항공박물관 자료관리팀 학예연구사)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항공독립운동을 위해 추진한 한인비행학교 개교일(1920년 7월 5일) 100주년인 2020년 7월 5일 개관하였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박물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야외에서 개관식만 하고 바로 휴관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12월부터 개관을 준비하였던 박물관으로써는 관람객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인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관 준비 과정부터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또한 교육 콘텐츠를 DIY 꾸러미 형태로 제작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당시 초등학교의 휴교, 비대면 수업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역 사회 아동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후 순차적으로 관람객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국립항공박물관은 특히 박물관의 “접근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심 끝에 「A(viation)-ble」¹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

「A(viation)-ble(A-ble)」은 발달 · 청각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시 안에서도 특히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구로, 지역 내 발달장애 특수학교와 문화센터, 시각 ·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 문화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즉, 지역 사회와 협업하며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하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환경이었다.

¹ 국립항공박물관의 장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브랜드로 ‘항공’을 뜻하는 Aviation과 ‘할 수 있다’를 뜻하는 Able이 조합된 명칭과 같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항공 역사·문화·산업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A(viation)-ble 발달장애 프로그램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ble은 2022년 2월, 지역 내 첫 번째 공립 발달장애 특수 학교인 <서울서진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업무 협약식과 함께 교사 워크숍을 준비하여 서진학교 교사진이 박물관의 전시·체험·교육 콘텐츠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 학생 대상 A-ble 기획을 위한 사전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담당 교사진과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해 4월 서울서진학교 초등 과정 5학년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그간 한국의 박물관에서 진행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별되는 점은 특수학교와 적극 협업하여 34주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기획·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는 다른 어떤 장애 유형보다 개인 편차가 심하고, 단발성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총 34주 동안 박물관 교육팀은 매주 서울서진학교 어린이들과 50분씩 만나면서 서로 간의 친밀도를 쌓았고, 비행기와 비행 여행 관련 콘텐츠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머리와 몸으로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처음 서울서진학교 교장 선생님이 박물관 측에 전한 바람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비행기는 너무 낯설고 무서운 공간이라 결국 탑승을 포기하거나 신발을 벗고 기내에 들어가 결국 여행 내내 신발을 신지 않기도 하였다. 등하교하면서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착륙하는 비행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하룻길에 하늘의 비행기를 본 아이가 수업 시간 배운 내용을 조잘조잘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격했다.”라고 말한 학생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서울서진학교 5학년 친구들과 함께했던 수업 커리큘럼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	주 제	주요 내용	교육 모습
4월	비행기랑 만나요	다양한 비행체 접하기, 비행기 날려보기	 
5월	비행기를 타러 가요	비행원리, 여객기 내부 구조와 탑승 절차	 
6월	비행기를 몸으로 날려요	블록 코딩으로 비행 로봇 제어하기, 코드론 미니 조종하기	 
11월	비행기와 대화해요	박물관 관람 연습하기, 국립항공박물관 관람하기	 

2023년부터는 5학년 과정 외에 “드론 축구”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과정이 추가되었고, 2024년에는 서울서진학교 외 4개의 특수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언젠가 서울서진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듯, 국립항공박물관의 A-ble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인 항공교육 커리큘럼이 되어 더 많은 발달장애 학생이 “항공”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viation)-ble 청각장애 프로그램

국립항공박물관은 전체 박물관 공간 중 45%를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나 난이도에 따라 “항공”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취한 “접근성” 확대 정책 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관과 함께 문을 연 5개의 체험관은 장애인 친화적이라고 하기에 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에 가장 적합하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선택된 체험관은 <기내안전체험관>이었다. <기내안전체험관>은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여 항공 안전 규칙과 비상 착륙 시 탈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승무원의 안전 교육에 버금가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입소문과 안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체험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하더라도 교육 내용을 온전히 전달받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물관 교육팀은 청각 장애인이 시각이나 발달 등 기타 장애 유형에 비해 외부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나 역으로, 겉보기엔 장애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여타의 장애에 비해 배려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는 점에 집중했다. 특히 기내 긴급상황 발생 시 방송이나 승무원의 육성 즉, 음성을 통해서만 안내가 제공되므로, 청각 장애인의 경우 긴급상황에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기내안전에 대하여 정확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청각 장애인을 장애 유형 중 첫 번째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내훈련체험관 A-ble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아바타 수어’이다.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에 수어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수어 영상이란 수어로 표현할 콘텐츠를 정하면 수어 번역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수어 통역사가 수어로 전달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어 영상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상의 부분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한 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내용이나 표현, 순서 등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기내훈련체험관은 안전교육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등 콘텐츠 변경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바타 수어이다.

아바타 수어 번역 기술은 한국어, 아랍어와 같은 음성 언어를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비음성 언어인 수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아바타 수어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항공”이나 “안전”과 관련된 용어의 통일된 수어 동작이 아직 많지 않은 관계로 박물관 교육팀과 개발팀은 수어 번역을 통해 수어 동작을 캡처, 아바타에 맵핑하는 ‘폴

모션 캡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² 이 과정은 수어 번역가, 청각 장애인의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다듬어졌고, 수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진이나 일러스트, 영상 등을 키오스크에 함께 탑재하여 청각 장애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관 내에는 총 5개의 아바타 수어가 탑재된 키오스크가 설치되었다.

기내훈련체험관 A-ble 프로그램 외에도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내훈련체험관 A-ble 프로그램 기획 때에도 제기된 문제인 항공 전문용어가 한국 수어로 용례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도 ‘과학용어’를 수어로 개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국립항공박물관에서도 2023년부터 양력과 중력,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프로펠러와 제트엔진, 주날개와 꼬리날개 등의 기초 ‘항공용어’를 수어로 개발, ‘수어단어카드’ 및 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이 비행기로 여행할 때 승무원과 편리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카드’를 개발·제작하였다. ‘의사소통카드’에는 기내 승객에게 자주 발생하는 응급 상황과 기내 서비스 등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의 항목이 담겨 있는데, 박물관은 국토부와 10개의 국적 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기내지·안내문·태블릿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A(viation)-ble 시각장애 프로그램

A-ble 프로그램 중 2024년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많은 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대상 A-ble 프로그램이다. 여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시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각장애 특수학교 또는 복지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는 시각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 이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장애 유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단위의 시각 장애인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 교육팀이 선택한 방법은 서울관광재단의 유니버설 관광팀과의 협업이었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권이 취약한 교통 약자를 위하여 운영 중인 다누림버스(휠체어 리프트 차량)를 활용, 이미 남산이나 창경궁, 경복궁 등의 관광 명소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

² 아바타 수어와 관련된 내용은 2023 50th Conference of CIMUSET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cimusetseoul2023.com> 에서 2일 차 발표 20. <아바타 수어 기술과 국립과천과학관 MR(혼합현실) 기기 활용 언택트 유니버설 도슨트 프로그램 적용 사례>의 발표 요약문과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고 있었다.

A-ble 시각장애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기획 및 촉각 교구의 제작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실제 시각 장애인 관람객을 이끄는 현장영상해설사³의 교육은 서울관광재단이 각각 전문 분야를 나누어 협업 하에 만들어졌다. 두 기관이 함께 박물관의 대표 콘텐츠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로 전시의 스토리라인과 전시물, 동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2시간을 기본으로, 박물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호와 같은 세계항공역사에서부터 우리나라 항공독립운동의 중요한 사료인 월로우스 신문 · 이용근 비행사의 자격증 점자 · 촉각 교구와 금강호 · 무스탕 · T-50 등의 비행기 촉각 교구, 보잉 747 점보제트기 단면 등의 축지판형 촉각 교구를 통해 주요 항공역사와 항공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후 2층으로 연결되는 에어워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층간 이동을 하고 촉각으로 경험한 비행기의 전시 위치 설명을 듣기도 한다. 2층에서는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블랙이글스 VR 탑승 체험도 함께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4층 옥상 전망대에서 김포공항 축지판형 교구와 실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리를 활용하여 김포공항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A-ble 시각장애 프로그램의 대상을 일반 성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각 장애인에는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많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그나마 여러 경로로 혜택을 받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문화 체험 기회가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육 참가자들은 사고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시력이 안 좋아진 경우(저시력)가 많았고, 완전히 안 보이기(전맹)보다는 단안 실명, 시야각 결손 등 다양한 유형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읽지 못하는 모르는 경우⁴가 예상보다 많았으며, 전맹이 아닌 저시력 등의 유형의 시각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전시물이나 전시 패널을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박물관은 이러한 실제 시각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점자가 주 구성 요소인 형태를 지양하고, 점자와 더불어 다양한 재료를 통한 촉각 활용을 더한 복합적인 촉지 교구를 제공하였고, 우리

가 양성한 현장영상해설사들도 장애 유형에 맞춰 설명이나 촉각 교구의 활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여타의 박물관 시각장애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국립항공박물관의 A-ble 시각장애 프로그램 참가자는 상당히 많은 인원 수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광재단 다누림 프로그램 수혜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재단이 아닌 기타 경로로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해설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람을 하고 싶은 시각 장애인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에는 발달 · 시각 · 청각 등 위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이들도 분명 있고,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도움의 유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 · 유아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이는 (극)소수를 위한 예산 사용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접근성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선택적 수혜를 받는대거나, 반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선택적 차별을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기내훈련체험관>의 아바타 수어 키오스크는 항공안전 관련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추가로 보완한다면 청각 장애인이 아닌 영 · 유아나 고령자, 기타 일반인의 콘텐츠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단어카드’는 크기와 디자인, 내용 등을 보완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카드’로도 함께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물관 현장의 모든 이가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시각 장애인에게 관광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 방향, 거리, 사물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청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관람을 돕는 서비스이다.

4 2023년 말 기준, 국내 시각 장애 등록자 수는 약 25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9.4%의 비율을 차지한다. 시각 장애인 중 10% 정도의 인원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으며, 90%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점자 문맹에 해당한다.

5 2022년 44명, 2023년 66명

이집트박물관 소개

Grand Egyptian Museum(GEM)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NMEC)



Grand Egyptian Museum(GEM)

인사말

이집트아랍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부터 뜻깊은 협력과 우애의 관계를 가져왔으며, 특히 문화 분야에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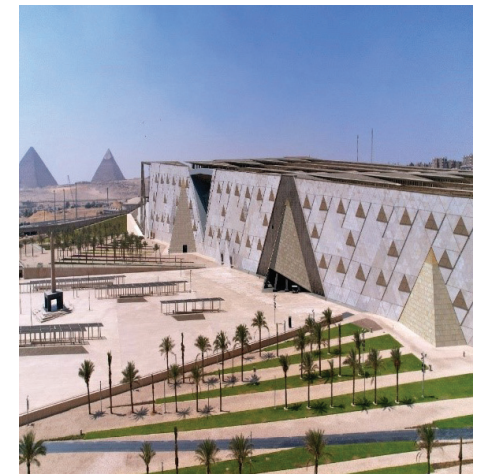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모두에게, 특히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과 조율 범위 확대를 희망하며, 저는 대이집트박물관의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협력 단계를 면밀히 지켜보고 박물관 곳곳에 건축적 접근성 코드와 그에 대한 서비스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그리스 로마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단일 문명을 반영하는 전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서 이집트가 전 세계에 선사하는 선물이며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기자 피라미드(Giza pyramid)가 가지는 인류문명에의 공헌을 확장하여 보여줍니다. 대이집트박물관에는 박물관과 피라미드 고원을 연결하는 시간 여행자 통로가 설계되었는데, 이는 이집트 비전 2030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문화 유산을 부활시키고 인프라에 이를 결합시켜 관광객과 지역 사회에 이집트의 풍부한 유적을 기리는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UN 헌장에 맞춰 사회 개발 목표와 완전하게 발맞춰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이집트박물관 관계자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 문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식과 즐거움의 지평을 여는 박물관의 역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대이집트 박물관은 건축적 장애물 제거,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한 박물관 직원 역량 강화와 같은 여러 요소가 도입된 명확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우리의 친구인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산, 역사, 예술을 해석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지평을 여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사람들 사이의 소프트 파워의 한 지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해석은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는 공동의 인류 유산을 보존하는 가치를 낳게 됩니다.

아티프 미프타흐(Atef Moftah)
(General Director of GEM & surrounding Area)



기자 피라미드 가까이 위치한 대이집트박물관의 위치



대이집트박물관 정면과 공중 오벨리스크 광장

대이집트박물관의 비전

박물관의 비전은 단일 역사 문명을 전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방문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집트가 최고의 여행지이자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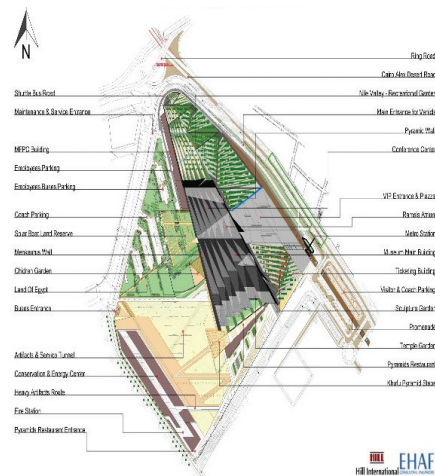
대이집트박물관의 미션

대이집트박물관은 인류를 위해 고대 이집트 유산을 보존, 연구 및 홍보하며,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인 방문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대중에게 지속 가능성, 다양성, 교육을 장려하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집트의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문화 유산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대이집트 박물관 역사와 이야기

대이집트박물관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문화 허브로서, 재미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발견의 즐거움과 문화와 역사의 재미를 선사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관람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매일 이집트 고고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여 문화 관광 애호가들의 관



대이집트박물관 설명 지도



기자 피라미드와 연결된 박물관 전경

심을 끌고, 이집트 방문을 그들의 위시 리스트에 넣도록 할 것입니다.

투탕카멘(Tutankhamun)의 무덤은 1922년 룩소르 서부 내륙의 왕가의 계곡에서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가 이집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발견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왕이 묻힌 후 거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최초의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였기에 관람객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덤 속 유물이 잘 문서화되어 지난 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이집트박물관을 설립하여 이집트 역사의 영광을 찾겠다는 야심찬 21세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1902년에 설립된 이집트 박물관, 그 외 전국의 다른 박물관들과 유물 수장고에서 현대 박물관 전시 방식에 맞춰 전시되지 않고 보관만 된 수천점의 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보물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박물관 건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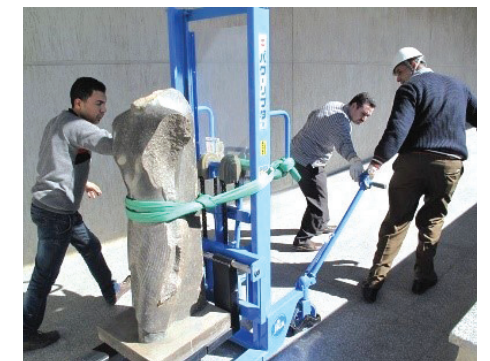
대이집트박물관 건설의 꿈은 1998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예술가 파루크 호스니(Farouk Hosny)가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 위치한 이집트 박물관보다 훨씬 큰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은 5,000-7,000명의 관람객을 매일 140,000㎡의 공간에 수용하기에 공간이 좁았고, 이로 인해 관람객이 박물관의 유적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대 이집트 유물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가진 박물관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립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국제 공모전을 통해 아이코닉한 건물 디자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전에는 83개국에서 1,557개의 작품이 응모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공모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의 건축 회사인 헤네한 팡 아키텍츠(Heneghan Peng Architects)가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은 이집트학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가 되었고 인류 유산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는 최고 수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면적은 117에이커로 축구장 약 80개에 달하고, 박물관과 그 주변 지역의 면적은 총 11,600에이커에 달합니다.

한편 독일의 아틀리에 브루크너(Atelier Brückner)가 투탕카멘의 보물실과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실행을, 주요 전시실은 HSDCI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으며, 설립 작업은 오라스콤 건설(OCI)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습니다. 실행 및 건설 감독에는 베식스(BESIX company)가 힐 인터내셔널(Hill International)과 독일의 글라스 보한(Glass Bohan), 스페인의 악시오나(Acciona)와 이집트 기업들의 컨소시엄과 함께 수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컨소시엄이 고대 이집트의 유산과 역사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대이집트박물관 설립에 할당된 예산

2002년, 이집트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JICA)의 차관이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박물관의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또한 2003년 이집트 대통령과 일본 전 총리 간의 정상회담 이후 이집트 국가 사업으로서 박물관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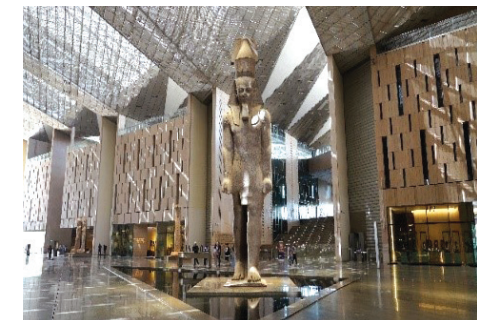


대이집트박물관에서 육중한 유물을 옮기는 모습

박물관 구역 및 전시실

독특한 공중 오벨리스크 광장이 있는 개방형 광장에서 시작되는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광장을 지나 거대한 로비가 나오는데, 제 19왕조(기원전 1279년-기원전 1213년)의 제 3대 파라오인 람세스2세의 동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람세스 2세(Ramesses II) 동상 뒤로 메리엔프타(Merenptah) 왕의 승리 기둥과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c) 왕조의 왕과 왕비의 두 개의 수중 보물 동상이 있습니다.

그 후 대형 계단이 나타납니다. 이 곳에서 관람객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적 보물과 예술을 이해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68개 전시품들은



관람객을 맞이하는 람세스 2세 동상



박물관 정면 앞에 위치한 공중 오벨리스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물인 투탕카멘의 황금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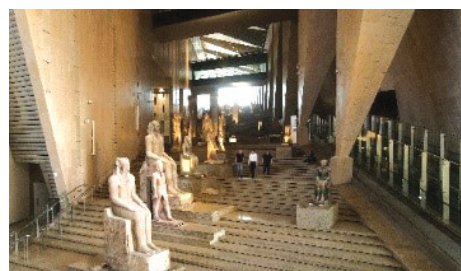
네 가지 주제인 왕의 이미지, 신전, 왕과 신, 영원한 여정으로 나뉘어 전시되는데 마지막 주제는 계단에 전시되어 관람객은 개방형 공간과 내부의 전시물을 연결하는 거대한 유리 창을 통해 기자 피라미드 지역의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3층에 도착하면 메인 전시실 내부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단의 오른쪽에는 면적이 7000㎡에 달하는 투탕카멘의 보물 전시실이 있으며 발견 이후 처음으로 모든 유물이 함께 전시될 것입니다. 유물은 무덤 발견 방법, 발견 지점, 왕의 정체성, 왕의 신념과 보호, 생활 양식이라는 다

섯 가지 주제로 나뉘어 전시됩니다.

거대 계단 왼쪽에는 12개의 역사 전시실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말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1층의 약 3000㎡의 공간에는 홀로렌즈(HoloLens) 기술 전시실이 있어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2층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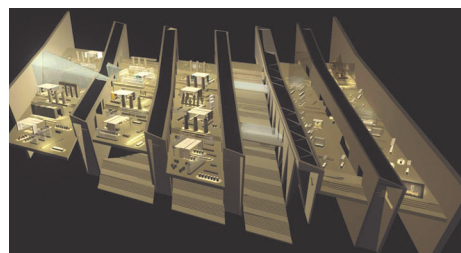
또한 1954년 대피라미드 남부에서 발견된 쿠푸왕의 배도 전시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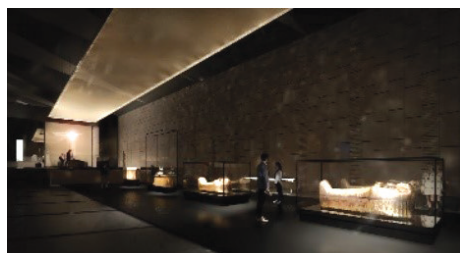
대이집트박물관의 대형 계단



기자 피라미드를 감상할 수 있는 대이집트박물관의 대형 계단 최고층의 개방 풍경



박물관 3층의 메인 전시실(투탕카멘과 역사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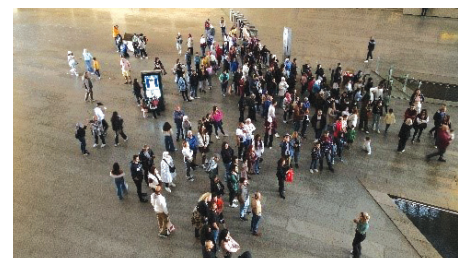
투탕카멘 전시실의 내부 모습



박물관 보존 센터의 보존 학예사



대이집트박물관 수장고



박물관 로비에서 가이드 투어 중인 관람객들



어린이박물관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그림 수업



가족의 날 및 박물관에서의 다양한 유적 활동

보존 센터

보존센터는 17개의 실험실과 보관 및 문서화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톤에 달하는 유적을 보관하는 수장고도 있습니다. 이 보존 센터는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첫번째 건물은 2010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현대 장비를 사용하여 훈련받은 최고 수준의 숙련된 보존 학예인력들이 유물을 수령, 문서화, 살균, 복원, 보존 작업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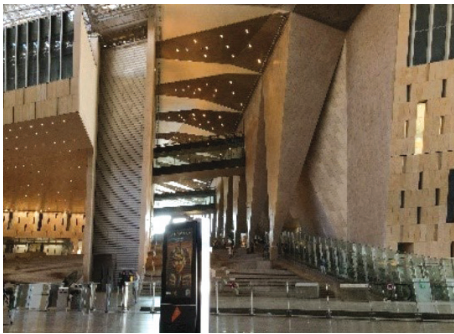
대이집트박물관은 10만㎡의 녹지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곳에는 고대 이집트의 향신채, 나무, 과일이 있습니다.

교육

박물관은 비공식적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교육용 교실 뿐만 아니라 금속, 도자기, 파피루스, 섬유 수공예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고대 이집트 공예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900석 규모의 컨퍼런스 센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도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게임, 워크숍과 실습, 가상 전시실, 멀티미디어 기기, 애니메이션과 짧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 파피루스에 글쓰기나 점토로 작은 물건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실습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박물관에서 왕들의 생활과 신앙, 그들의 업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희귀 서적 고고학 도서관이 있으며, 요청 시 다국어 가이드 투어도 제공됩니다.



대형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유리 엘리베이터



디지털 전시 스크린



대형 계단에 있는 전시물 연계 터치 테이블 및 복제품



스포츠 영웅인 아므르 엘소하기(Amr El Sohagy)가 휠체어에 탄 채 박물관을 방문한 모습

대이집트박물관의 접근성

박물관의 접근성은 두 요소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물리적인 접근성이며, 두번째는 지적 접근성으로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역량과 능력 향상이 이에 포함됩니다.

접근성의 첫번째 요소는 바로 물리적 접근성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앱 사용, 온라인 예약, 지하철 역 출구를 티켓 오피스에서 가까운 위치에 마련하는 방법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 관람객 안내를 위한 표지판 제공, 전기차,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경사로, 파노라마 엘리베이터가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전시실 주변에 경사도가 설계되었으며, 전시실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및 시설 안내용 센서, 응급 처치 시설, 휠체어, 안내 데스크, 보조 기기 및 헤드셋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람객을 안내하고 관람객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스크린이 있으며 투어를 마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기도실, ATM, 기념품 숍과 식당도 있습니다.

접근성의 두번째 요소는 바로 지적 접근성입니다. 지적 접근성은 박물관이 문화 허브로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계단에는 7개 언어(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된 설명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시 주제와 관련된 촉각 전시물을 포함한 점자 카드가 아랍어와 영어로 제공됩니다. 점자 카드는 시각장애 전문가가 촉감과 읽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어와 아랍어 점자로 된 소책자

를 인쇄하고, 장애인 응대 훈련을 받은 큐레이터가 동행한 터치 투어, 수어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된 식당 메뉴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치 테이블에 설치 전 복제품 확인 모습



터치 테이블에 설치 전 복제품 확인 모습

대이집트박물관의 활동, 행사 및 프로그램

대이집트박물관은 2019년 교육 센터 팀과 예술 교실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다운증후군과 같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맞이하여 다른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개관 전 프로그램을 미리 관람하고 보존 센터를 특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이들을 노동 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대 이집트 디자인과 기호를 해석하는 워크숍을 마련하고, 고대 이집트 디자인 가구를 디자인하고 그리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가구 디자이너 및 제조 업체와 소통하여 해당 디자인의 가구를 생산하였고, 이들의 디자인은 2024년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람객 응대를 위한 수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 또는 시민 사회와 소통하는 비정부 기관과 협력 및 열린 협업을 지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암 환자, 고아원, 고령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 접근하고자 시민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관 전, 다운증후군 관람객 대상 통합 원데이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모습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NMEC)

인사말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NMEC,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은 2021년 4월 3일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 대통령에 의해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식에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주랍 폴로리카슈발리(Zurab Pololikashvili)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TV 채널, 인터넷 및 SNS 생방송을 통해 성대한 박물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이 이집트 왕과 왕비들을 영접하는 장면, 즉 이집트 국가 원수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존중과 이집트 왕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 장면 연출이었습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집트 왕과 왕비 미라 20구와 관람객에게 마치 왕가의 계곡을 방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전시방식으로, 이를 위해 관람객의 감각을 높이는 상당량의 다양한 장식과 조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5,000년 전 파라오 왕조부터 그리스 로마시대, 콥트와 이슬람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문명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즉, 관람객은 이집트 문명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엄선된 약 1,600점의 유물 관람을 통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전 세대의 이집트 문명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현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통합 문화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위해 레스토랑, 극장, 전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강연장 및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이 이집트가 현재 바라보는 발전상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문화와 과학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아흐마드 파루크 고니엠(Ahmed Farouk Ghoneim)
(Managing Executive Director of NMEC)



미션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 그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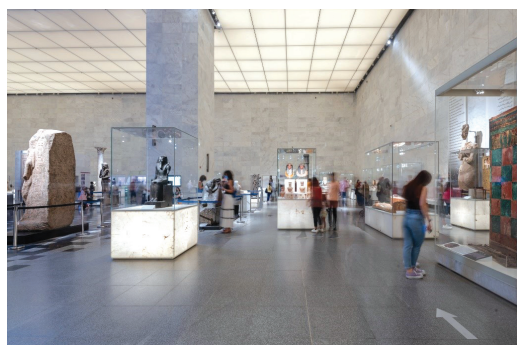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목표는 관람객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이집트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예술, 과학 부문의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전시실

박물관은 3개의 주요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 미라 · 이집트 직물 전시실

중앙 전시실

박물관 중앙 전시실에는 독특하고,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은 이집트인들이 물려받은 전통문화와 민속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선사 시대부터 파라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콥트 시대, 이슬람 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문명과 다양한 시대의 주요 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유물 |

나즐렛 카테르 해골(Nazlet Khater Skeleton)

35,000년 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해골이며,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독특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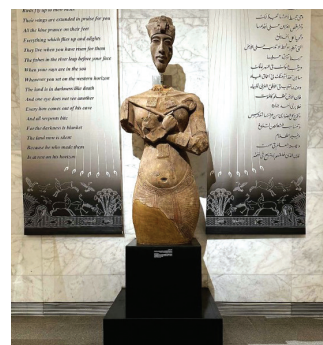
정화의 텐트(Tent of Purification)

이스템 케브 2세 공주의 고대 가족 천막으로 과거를 탐험해보세요. 천막은 미라로 만들기 전 몸을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매혹적인 유물은 우리를 고대 이집트의 뿌리깊은 전통으로 이끕니다.



아케나텐 조각상(Ekhnaton Statue)

카르나크의 아케나텐 왕 사원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1,300년경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은 과거 이집트 왕실 유산의 영속적인 증거입니다.



센네젬의 관(The coffin of Sennedjem)

센네젬은 왕들의 계곡에 있는 세티 1세(King Seti I)와 람세스 2세(King Ramses II) 무덤과 같은 왕실 무덤을 장식하는 일을 했던 장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르 엘 메디나(Deir Al Madina) 마을에 있는 자신의 무덤 앞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미라가 안치된 센네젬의 내부 관은 사자의 서에 나오는 수호신들의 장례도로 장식되어 있으며, 센네젬이 나무의 여신으로부터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관 뚜껑에는 긴 흰색 린넨 치마의 세속적인 옷을 입은 그를 신왕조, 제19대 왕조(BC 1295 - 1186, 데이르 엘 메디나 / Deir el-Madina)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시스4세 마차(The Chariot of Tuthmoses IV)

목재로 섬세하게 제작된 고급스러운 황금 마차는 왕의 막강한 권력과 승리의 업적을 보여줍니다.



타박트 엔 무트 보철(The prosthetic toe)

이 놀라운 유물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룩소르의 타박트 엔 무트(Tabaket en Mut)가 만든 보철물로서 고대 의료 행위를 보여줍니다.



아멘호테프 3세 물시계 (Water clock from Amenhotep III)

이집트 황도대의 비밀을 보여주는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설화 석고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시계를 통해 그 시대의 정확한 시간 측정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닐루스(The Nilos)

닐루스는 나일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로마시대 나일강의 의인화된 신이며, 보통 16명의 아이들로 둘러싸인 노인으로 묘사됩니다. 16명의 아이들은 나일강 범람을 축하하기 위해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16곡을 상징합니다. 이 노래의 전통은 기원전 20세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닐루스는 로마인이 아프리카 상징으로 선택했던 하마에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나일강의 기원과 아프리카의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로마제국의 도쉬 보물

(Dush treasure from the Roman Empire 300AD)

이 보물은 도쉬 성(Dush Citadel)에서 발견되었으며, 로마제국의 재산에 관여한 성주의 소유물로 여겨집니다. 서기 300년 경의 이 보물은 우리가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바우윗에서 발견한 돔(Dome found in Baou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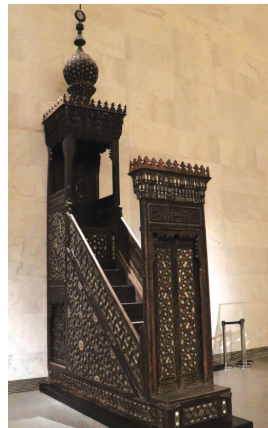
아름다운 콥트 유물이 있는 바흐리야 오아시스 바위트에서 발견된 돔이, 과거 장인정신과 독특한 문화 예술 유산을 엿볼 수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아부 바크르 빈 마즈하르의 설교단

(Minbar Aboubakr Ibn Mizhar)

설교단은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며, 존경받는 셰이크가 금요일 설교를 하던 곳입니다. 이 설교단은 아부 바크르 빈 마즈르 모스크 소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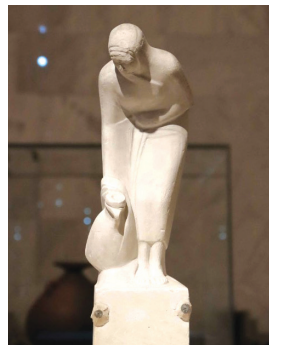
마흐말(가마) (The Mahmal from King Farouk)

낙타가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운반하는 마흐말 행렬은 약 4개월이 걸리는 신성한 여정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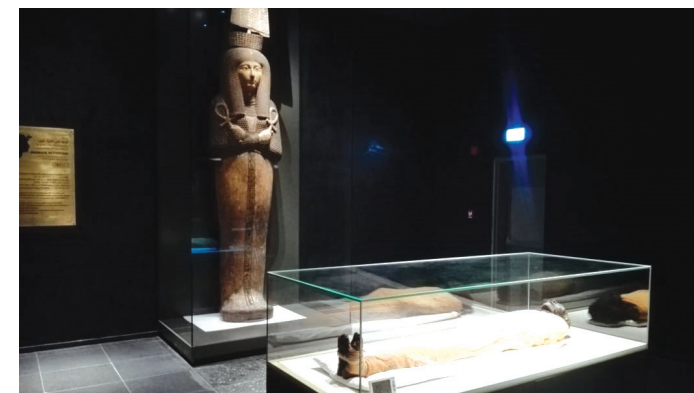
마흐무드 무크타르의 농부 조각상(AI Falaha Statue by Mahmoud Mokhtar)

이 작품은 선구적인 조각가 마흐무드 무크타르의 걸작으로서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시대 초월적 찬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미라 전시실

왕족 미라 전시실에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 왕 미라 17구, 왕비 3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비 미라를 전시하기 위해 특별 설계된 전시실이 있는 것이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전시실은 왕족 미라가 발견되었던 왕가의 계곡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관람객들에게 줍니다.



| 주요 유물 |

아모스 - 네페르타리 여왕 외관

(The Outer Coffin of Queen Ahmose Nefertari)

이 웅장한 관에는 아멘호테프 1세의 어머니이자 그의 공동 통치자인 아모스-네페르타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멘호테프 1세 미라(The Mummy of King Amenhotep)

아멘호테프 왕의 미라는 온전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미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유물입니다. 미라를 장식한 복잡한 꽃꽂이와 미라 마스크가 제자리에 남아 있어 이 통치자의 실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감상하세요.



투트모시스 1세 왕의 관

(The coffin of King Thutm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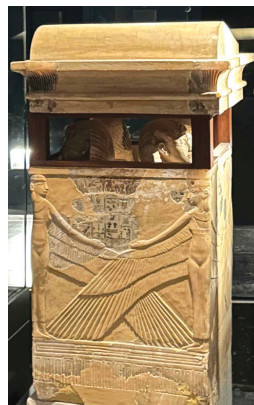
영광스럽게 빛나는 황금 장신구 유물로 장식된 투트모시스 1세 왕의 관을 만나보세요. 이 관을 통해 과거 웅장함과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호테프 2세 장기 보관함

(The Canopic chest of King Amenhotep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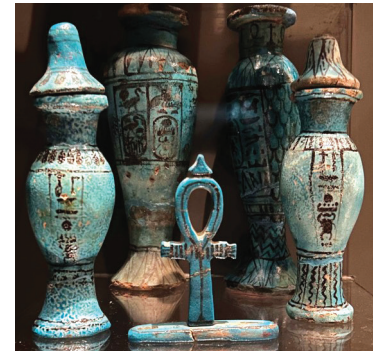
이 상자에는 아멘호테프 2세 왕의 장기가 들어 있는 신성한 카노푸스 단지(Canopic jars)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장례 관습과 신앙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투트모시스 4세 카토푸스 단지

(Faience jars of King Tuthmoses IV)

이 정교한 도자기 그릇은 투트모시스 4세 왕의 부장품 중 일부였습니다.



이집트 직물 전시관

이집트 직물 전시관에는 약 600점의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어 수천년에 걸친 이집트 직물과 섬유산업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뛰어난 패션, 보석, 의류 등 현대 왕실의 유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유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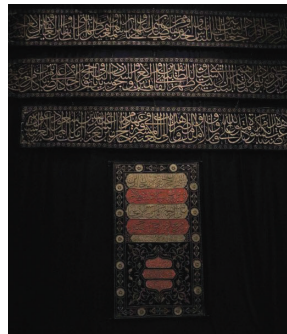
타나그라 조각상(Tanagra dresses)

매혹적인 타나그라 조각상의 전시를 보면서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로마시대로 시간 여
행을 떠나보세요. 그리스 타나그라 시의 이름
을 딴 이 조각상을 통해 일반인들의 패션과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각상은 점토
로 만들어졌으며, 무덤과 집에서 자주 발견되
었습니다.



회개의 문 덮개(키스와) (Baab El Tawba covering)

메카(Mecca)의 카바(Kaaba) 신전을 장식하는 키스와를 보십시
오. 이 특별한 작품은 1941년부터 카바의 내부 문인 회개의 문을
장식해 왔습니다. 이 유물은 역사 및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는 유물입니다.



기도 깔개(Prayer rug)

무함마드 알리(Mohamed Ali)가 그의 딸 자이납(Zeinab)에게
결혼 선물로 준 기도 깔개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생동감
넘치는 빨간 실크로 만들어졌으며, 금실과 은실의 정교한 자수로
장식된 이 깔개는 그 제작 과정의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유니폼(Uni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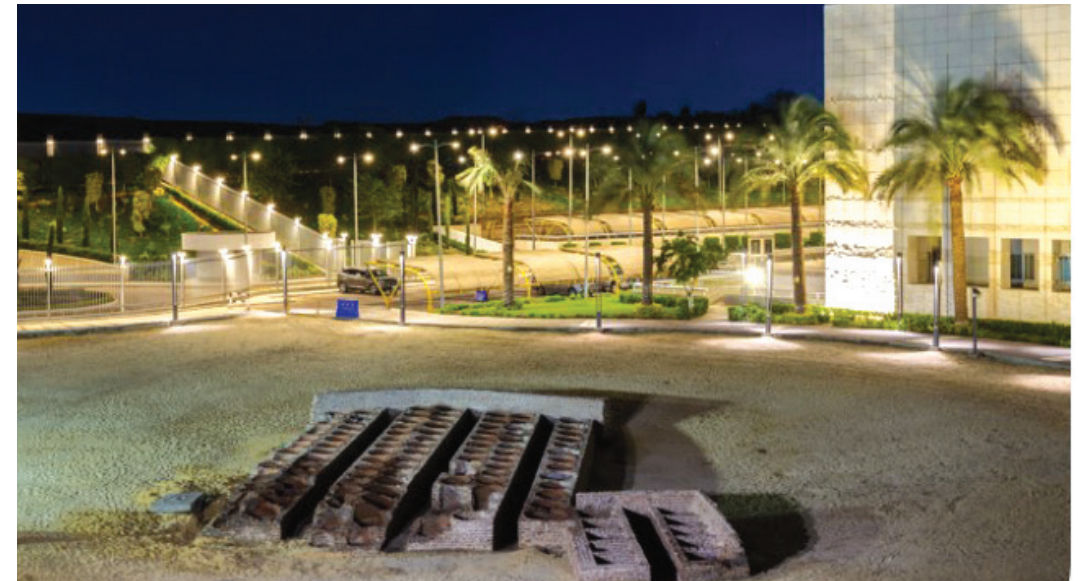
무함마드 알리 왕조 시절의 의복.

이 시기에는 정교한 자수와 고급스러운 소재로 장식된 노동자 계
급의 복식이 눈에 띕니다. 공식 행렬 때 마차에 동행한 하인 알
암샤지(Amshagi), 핸들과 채찍을 들고 앞좌석에 앉은 알 알라이
(Alay), 왕의 마차를 모는 자이 에스타페트(Estafette)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염색소(Dye House)

여러분은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마주할 것입니다.
특히 파티마 왕조 시대(Fatimid Period / A.D. 969-1171)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염색소
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이로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이 고대 염색소는 매우 희귀하고, 잘 보존된
보석 같은 곳이며, 수세기에 걸친 섬유 염색 세계를 매혹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접근성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모든 관람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소규모 그룹을 대
상으로 이집트 문명을 둘러싼 독특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활동을 제공합니다.



수어투어는 사전예약 필요



지정주차공간 이용 가능



모든 전시물은 엘리베이터로 접근 가능



요청 시 점자 브로슈어 이용 가능



휠체어 무료 이용 가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투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공예 워크숍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주변 환경 이해 워크숍 워크숍



수어 투어 세계장애인연맹 인증서 - 실버 모든 장애인을 위한 행사-어린이 및 성인

과학연구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에는 고고학 부문 연구 정밀 분석 전문 연구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미경 장비
-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장비
- 고대DNA연구실
- 방사성탄소연구실
- 미생물연구실
- 분자분광연구실
- 열분석연구실
- 원소분석연구실
- X-ray연구실
- 라만분광기연구실
- 압도측정연구실
- 무산소장치
- 고고학적 유적에서 검출된 식물유체연구실
- 유해연구실
- 이동식연구실
- 준비실
- 바이오뱅크



보존 센터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핵심인 유물 접수 부서(Antiquities Receiving Unit)는 역사적 유물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존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유물을 최대한 주의 깊게 접수하고 인수하고 재검토하여 수집품에 맞는 초기 관리를 합니다. 무산소장치에서 멸균 처리 되기 전에 각 유물은 꼼꼼한 문서화 과정을 거쳐 미래 세대를 위한 유물 보호를 보장합니다.

- 유물접수과
- 무거운 돌 복원과
- 미라 복원
- 이콘 및 유화 복원과
- 유기유물 복원 연구실
- 무기유물 복원 연구실

유물 수장고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유물 보관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50,000개 이상의 유물(대부분이 지금까지 전시된 적이 없는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물을 구성하는 소재와 소재 따라 구분된 10개의 수장고는 온도와 습도 및 기타 요소를 제어해 유물 보존에 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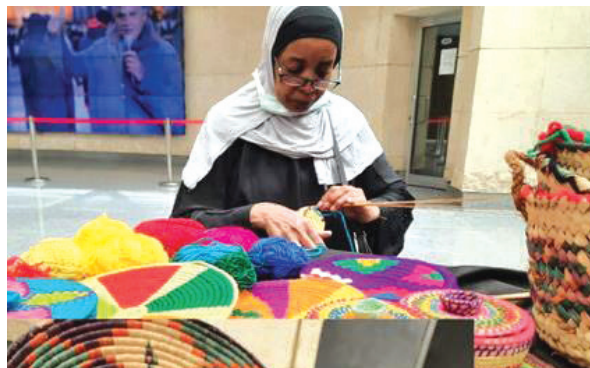
수장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 |
|-----------|-----------|
| - 무거운 돌 | - 가벼운 돌 |
| - 식물 | - 목재 |
| - 소장품 | - 금속 및 유리 |
| - 최고 보안등급 | - 미라 |
| - 근현대 | - 도기 |

지역사회봉사 활동 및 유산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유산부에서는 특별한 성격의 유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집트 문명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소개하는 박물관의 선구적인 역할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개발, 향상, 홍보하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지로서 박물관은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유산 부서가 주관하고 낸시 아마르(Nancy Ammar), 마나르 하산(Manar Hassan), 저민 조지(Germine George) NMEC 선임 유산 전문가가 직접 감독하는 일련의 라이브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집트 청소년들에게 유·무형 유산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NMEC의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 “흰 지팡이의 날”과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과 국립시각장애인센터는 이집트관광유물부 문화개발 및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부와 시각장애인지원협회와 협력해 흰 지팡이의 날에 시각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박물관은 역사 및 문화에 관한 활동의 일환으로 재미있고, 교육적인 워크숍을 주최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유산, 예술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청년을 지원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국 문명과 유산에 대한 그들의 소속감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예로, 박물관은 주 표적 집단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그린 파라오 그림”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포함한 하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박물관의 사회적 의제에 연계시키는데 있어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동 워크숍이 이집트 대통령 이니셔티브인 “미스르 타스타테아”(Misr Tastate'a) 및 국제장애인연맹과 협력해 개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국립이집트문명박물관은 박물관의 문화 행사 및 활동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시각장애 여성 음악인들로 구성된 유명 그룹인 ‘빛과 희망’ 오케스트라 공연을 이집트국립은행과 협력해 개최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ICOM 이집트 협업 온라인 워크숍

포용적 박물관을 위한 발걸음 : 한국과 이집트 박물관 사례



NATIONAL AVIATION
MUSEUM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